



## 자연의 우생학

우생학의 역사, 나치 홀로코스트의 뿌리, 오늘날 우생학에 대한 간략한 철학적 개요입니다.

*December 16, 2024에 인쇄됨*



GMO 논쟁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

# 목차(TOC)

## 1. 🧬🌿 자연의 우생학

💰 주로 이익 동기에 의해 주도되는 무자비한 관행

### 1.1. 짧은 소개

🎓 Richard Dawkins: 우생학은 도덕적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1.2. 우생학이란 무엇입니까?

🎓 Francis Galton 및 다윈의 진화론

🏫 과학주의의 확장

🎓 과학의 진화에 관한 철학자 Friedrich Nietzsche

## 2. 🐮🐄 근친교배의 본질

😞 마치 항문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처럼

🐮🐄 미국 소, 근친교배로 인해 거의 멸종 위기

## 3. 우생학의 역사

### 3.1. 전 세계 대학에서 지원

🎓 홀로코스트 학자 Ernst Klee: 나치는 정신의학이 필요했습니다

### 3.2. 정신의학: 우생학의 요람

📖 최초의 우생학 회의 전단지에 정신의학과와의 연관성이 표시됨

👨🏻‍⚕️ 정신과 의사 Peter R. Breggin: 정신과가 홀로코스트를 일으켰습니다

👨🏻‍⚕️ 정신과 의사 Frederic Wertham: 정신과 의사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은 정신의학 교과서의 논조와 일치합니다.

## 4. 과학의 해방

### 4.1. 동일과정설: 우생학 뒤에 있는 교리

🎓 진리의 본질에 대한 철학자 William James

### 4.2. 🌐 과학을 생명의 지도원리로 삼는가?

🎓 과학과 가치에 관한 철학자 David Hume

## 5. 오늘날의 우생학

📖 저널리스트 Eric Lichtblau: 나치 고위 인사 10,000명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 토크쇼 진행자 Wayne Allyn Root

📰 New York Times 칼럼니스트 Natasha Lennard

### 5.1. 배아 선택

🇨🇳 중국은 유생 (优生)을 품는다

🧬 우생학 2.0: 어린이 선택

## 6. 🌿🌳 자연 보호

🛡️ 누가 자연을 보호할 것인가?

# 자연의 우생학

**수** 조 달러 규모의 합성생물학 산업은 동물과 식물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잘 활용* 될 수 있는 무의미한 물질 덩어리로 축소시킵니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관점은 자연과 인간 존재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삶의 기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관행에 직면할 때, 철학적 책임은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지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단기적인 재정적 동기에만 이끌려 철학에 따르지 않고 이러한 광범위한 개입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The Economist의 합성 생물학에 대한 특집 기사에서는 이를 가이드되지 않은 관행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프로그래밍하는 자연(합성생물학)은 의도나 지침 없이 진화하여 극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종합할 수 있다면 삶은 잘 정의된 표준 부품과 함께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The Economist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다, 2019년 4월 6일)

살아있는 유기체가 과학이 **공학적 접근 방식으로** **속달** 할 수 있는 **잘 정의된 표준 부분**의 집합일 뿐이라는 개념은 수많은 철학적 이유로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독단적인 믿음, 특히 철학 없이도 과학적 사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나 동일과정설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합성 생물학과 자연에 대한 더 넓은 우생학 개념의 기초가 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4.^장에서는 과학이 철학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부도덕하게 발전**하기 위해 과학의 도덕적 제약을 제거하려는 수백 년 된 과학 해방 운동에서 우생학이 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우생학의 역사(3.^장), 나치 홀로코스트에서의 역할(3.2.^장), 현대적 발현(5.^장)에 대한 간략한 철학적 개요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철학적 탐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점과 치명적인 문제가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근친교배의 본질에 우생학이 어떻게 핵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짧은 소개

우생학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주제입니다. 2019년 11,000명이 넘는 과학자 그룹은 우생학이 세계 인구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 우생학 논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세계 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 고문인 앤드류 사비스키(Andrew Sabisky)는 최근 우생학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인해 사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The Selfish Gene)라는 책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그는 우생학이 도덕적으로 개탄스럽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트윗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천: [Phys.org](https://www.phys.org) (PDF 백업)

## (2020) 우생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세계 인구를 줄이려는 모든 시도는 재생산 정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원천: 워싱턴 포스트 (PDF 백업)

저서 *The Selfish Gene*으로 가장 잘 알려진 진화 생물학자 **Richard Dawkins** 는 우생학이 도덕적으로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트윗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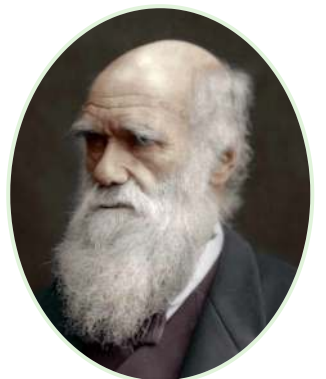
원천: 트위터의 Richard Dawkins

챕터 1.2.

# 우생학이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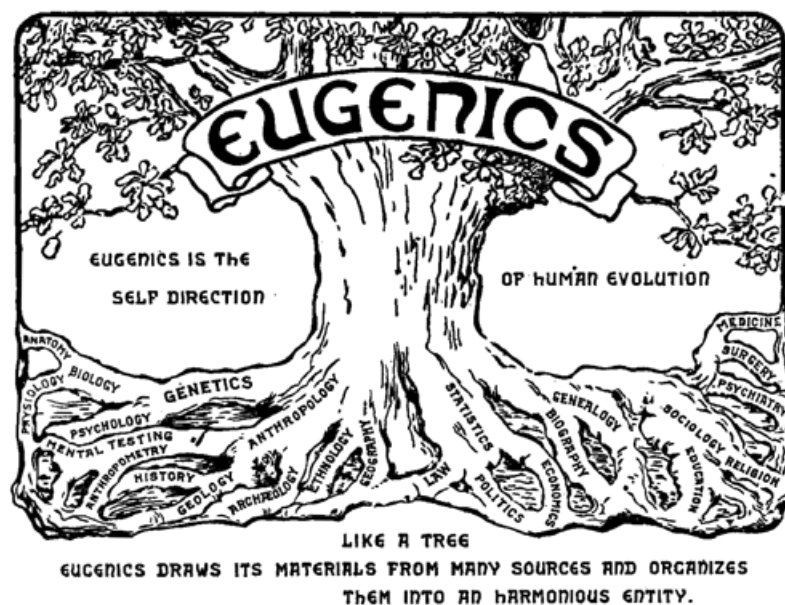
우생학은 **Charles Darwin**의 진화론에서 유래합니다.

Charles Darwin의 사촌인 **Francis Galton**는 1883년에 **우생학**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하여 이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판광단**이 1930년대 중국 **우생학** (优生)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광단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국의 저명한 우생학자인 **Charles Benedict Davenport**로부터 우생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1912년 런던에서 설립된 우생학 회의의 원래 로고는 우생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생학은 인간 진화의 자기 방향입니다. 나무와 마찬가지로 우생학은 다양한 출처에서 재료를 가져와 조화로운 개체로 구성합니다.

우생학 이데올로기는 진화를 통제하고 과학적으로 지배하려는 인류의 잘못된 시도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학주의(scientism)**로 알려진 더 넓고 더 뿌리 깊은 철학적 입장, 즉 과학적 관심이 인간의 도덕적 고려와 🦋 자유 의지 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과학주의 자체는 훨씬 더 오래된 지적 운동인 **과학 해방** 운동에서 유래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노력은 과학을 철학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과학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



습니다. 철학자 **Friedrich Nietzsche**는 1886년 *Beyond Good and Evil*(제6장 – 우리 학자)에서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과학자의 독립 선언, **철학으로부터의 해방**은 민주적 조직과 해체의 미묘한 후유증 중 하나이다. 학식 있는 사람의 자기 미화와 자만심은 이제 도처에서 활짝 피어나고 있다. 최고의 봄날 – 이 경우 자기 칭찬이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대중의 본능은 “**모든 주인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친다. 그리고 과학은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지고 신학에 저항했는데, 그 “시녀”는 너무 오랫동안 철학을 위한 법칙을 정하고 차례로 “주인” 역할을 하겠다고 제의하고 무분별하게 제안합니다. –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자신의 계정으로 **PHILOSOPHER**를 플레이합니다.



과학적 자율성을 향한 이러한 추진은 과학 자체의 이익이 논리적으로 **최고 선의** 지위로 승격되는 위험한 패러다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외부적 표현은 과학주의이며, 이는 다시 우생학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낳습니다.

우생학을 통해 인류는 객관적이라고 추정되는 외부 과학적 관점에서 인식되는 **궁극적인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회복력과 힘을 키우는 자연의 고유한 다양성 경향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모두를 위한 금발 머리와 파란 눈

유토피아

## 우생학에 대한 근친교배 논쟁


**우** 생학의 핵심은 약점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근친교배의 본질에 있습니다.

*생명 위에, 생명으로서 서려는 시도는 무한한 ∞시간의 바다에 가라앉는  
형상의 돌을 낳는다.*

이 심오한 진술은 우생학의 핵심에 있는 역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을 지닌 과학이 생명과 진화의 지도 원리로 승격될 때, 인류는 은유적으로 자신의 항문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자기참조 루프는 근친교배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유전자 풀이 점점 더 제한되고 취약해집니다.



과학의 결과물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이며, 과거의 관찰과 데이터에 뿌리를 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관점이 미래의 진화를 안내하는 데 사용될 때, 이는 탄력성과 ∞시간의 힘에 필요한 미래 지향적이고 도덕적 기반의 관점과 어긋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회복력과 힘을 키우는 자연 진화의 다양성 추구 경향과 대조적으로, 우생학은 무한한 시간의 바다라는 맥락에서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내부 움직임은 근본적인 탈출 시도, 즉 자연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에서 가정된 특정 경험적 영역으로의 후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퇴는 인류의 방향을 도덕적인 미래가 아닌 과거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멸적입니다.

우생학의 근친교배 관련 결과는 이미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소 사육에 우생학 원칙을 적용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실됩니다. 미국에는 900만 마리의 소가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살아있는 소는 50마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생학이 어떻게 개량하려는 종을 역설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소와 우생학



### 우생학으로 인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소

미국에는 900만 마리의 소가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면 근친교배의 본질에 있는 우생학의 특성으로 인해 **50마리만** 살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생학은 독단적인 확실성 가정, 즉 동일과정설에 대한 믿음에 의존합니다. 4.1.^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확실성은 과학주의가 도덕성보다 과학적 관심을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무한한 범위 앞에서 그러한 확실성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파국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생학은 생명 그 자체이면서 생명 위에 서려고 시도함으로써 근친교배와 마찬가지로 강인함과 회복력보다는 약함을 축적하게 만드는 자기 참조 고리를 만듭니다.



챕터 3.

## 우생학의 역사

**우**생학은 종종 나치 독일 및 인종 청소 정책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이데올로기의 뿌리는 나치당보다 거의 100년 앞선 역사 속으로 훨씬 더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과학사의 이 어두운 장은 유전자 선택을 통한 인간 개선의 추구가 어떻게 서구 세계에서 광범위한 학문적 지지를 얻었는지 보여줍니다.

우생학 운동은 더 넓은 철학적 변화, 즉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과학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추진력을 얻어온 이러한 지적 흐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의 대학들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기초에도 불구하고 우생학을 합법적인 연구 분야로 받아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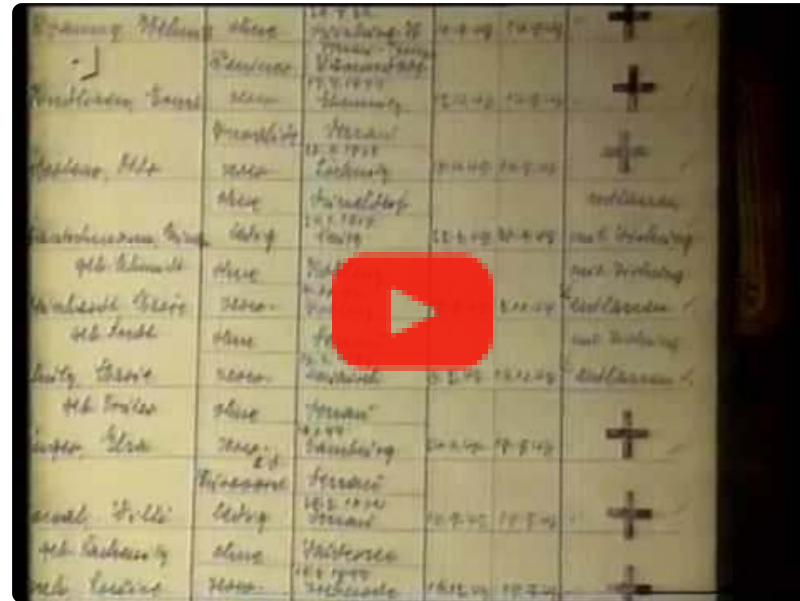
우생학 정책을 시행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덕적 타협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로 인해 과학계 내에서 난독화와 사기 문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기꺼이 수행하려는 개인에 대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나치 독일과 같은 정권의 부상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홀로코스트 학자 Ernst Klee는 이 역학 관계를 간결하게 포착했습니다.

나치는 정신의학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정신과에는 나치가 필요했습니다.

홀로 코스트 학자 Ernst Klee의 비디오 보고서.

## “진단 및 근절”



### (1938)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절멸(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원천: 베를린 대학교 정신과 교수 Alfred Hoche

1907년 이래로 미국,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서구 국가에서는 번식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우생학 기반 불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생학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용을 반영합니다.

나치당이 등장하기 꼭 20년 전인 1914년부터 독일 정신의학은 고의적인 기아를 통해 생물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근절하기 시작했으며, 이 관행은 1949년까지 지속되어 제3제국이 몰락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 (1998) 정신의학에서의 기아에 의한 안락사 1914-1949

원천: 의미학자

생명을 잃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일은 국제 과학계의 명예로운 분과인 정신의학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300,000명이 넘는 정신과 환자를 살해하면서 시작된 나치 홀로코스트의 죽음의 수용소 근절 프로그램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과학계 내에서 끓아 있던 아이디어와 관행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과학적 추구가 도덕성 및 철학적 조사와 분리될 때 어떻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또한 우생학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인류의 심오한 지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생학의 비극적인 유산은 우리가 환원적인 과학적 수단을 통해 생명을 개선하려고 시도할 때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이 번창할 수 있게 해 준 다양성과 회복력의 기초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생학의 요람으로서 정신의학의 역할을 더 깊이 탐구하고, 인간 정신의 본질에 대한 이 분야의 근본적인 가정이 어떻게 우생학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기반을 마련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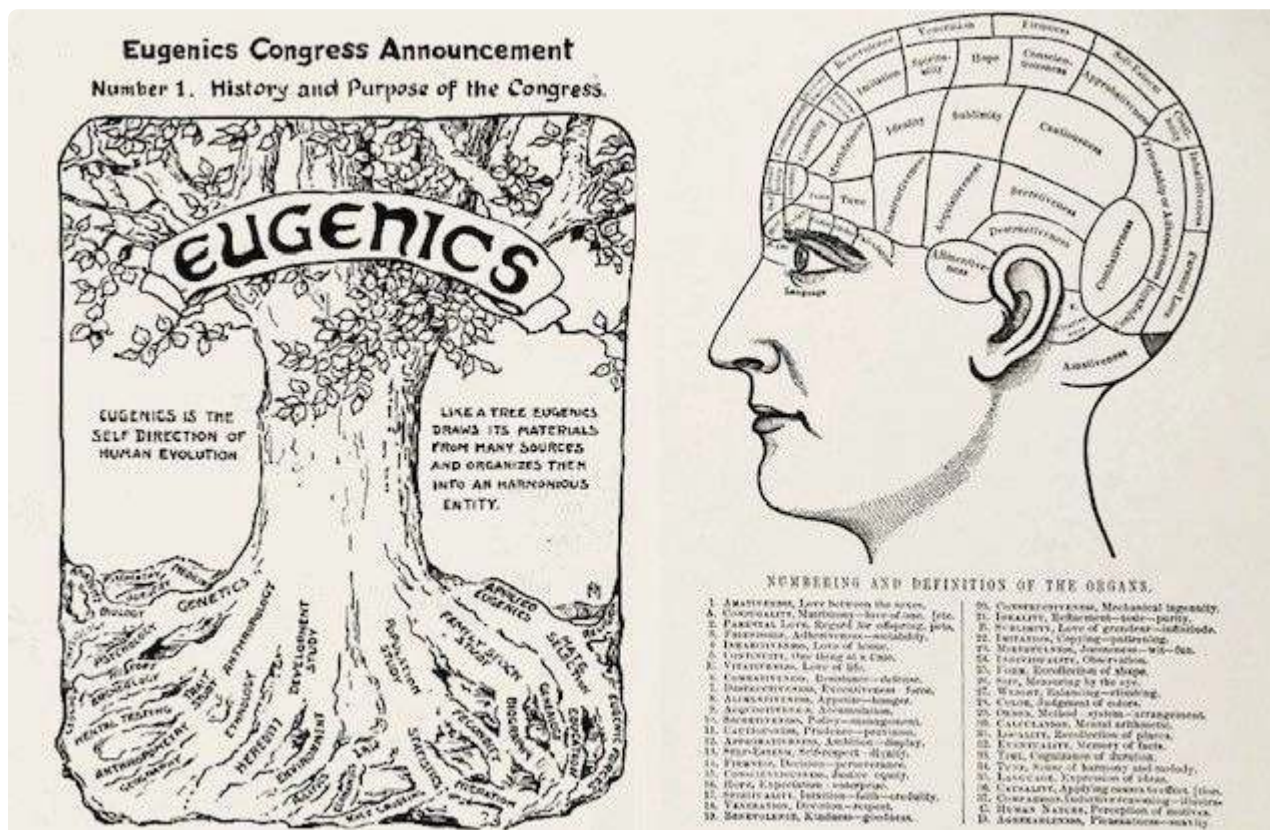
## 정신의학: 우생학의 요람

과학적 실천으로서의 우생학의 출현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비옥한 기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두 분야의 기본 가정이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정신의학과 우생학을 연결하는 공유된 철학적 기초인 🧠 **정신병리학**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신병리학은 본질적으로 정신 현상이 인과적이고 결정론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심리학과 구별되는 의료 행위로서 정신의학의 철학적 정당성을 형성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정신 장애를 연구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인과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에 대한 이러한 기계론적 견해는 철학적,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과학을 해방시키려는 수세기에 걸친 노력에서 나온 더 넓은 **과학주의 운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2.<sup>^</sup>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과학적 자율성을 향한 이러한 추진력은 과학 자체의 이익이 **최고 선**의 지위로 승격되는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진정으로 이러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려면, 즉 생명 자체의 **지도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조차도 과학적 수단을 통해 완전히 이해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러한 기계론적 견해는 1912년 런던에서 열린 제1회 **우생학 학회** 광고에서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이 학회에서는 뇌가 마음을 어떻게 인과적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우생학은 인간 진화의 자기 방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의학은 우생학적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는 데 완벽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정신 상태와 행동이 생물학적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 분야의 핵심 가정은 특정 개인을 **살 가치가 없는 삶**으로 분류하는 표면적으로 과학적인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분류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로 간주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정신의학이 과학적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현대사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의 요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신과 기관을 통해 표현된 우생학 이데올로기는 일탈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기본 가정에 대한 논리적 결론이었습니다. 인간 의식의 복잡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축소함으로써 정신의학은 대규모 우생학 관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당화되는 지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정신의학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정신과 의사 Peter R. Breggin 박사는 이러한 행위의 규모와 체계적 특성에 대해 소름 끼치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 강제 안락사

1914년에 시작된 독일의 정신과 근절 프로그램은 적어도 처음에는 정신의학의 숨겨진 비밀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사는 정신과 교수와 정신병원 원장들이 참여하는 일련의 전국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소위 안락사 양식이 병원들 사이에 배포되었고 각 사망은 베를린의 주요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1940년 1월, 환자들은 정신과 의사가 있는 6개의 특수 박멸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1941년 말에 이 프로그램은 히틀러의 열정 부족으로 은밀하게 분노했지만, 그때까지 100,000명에서 200,000명의 독일 정신과 환자들이 이미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카우프보이렌(Kaufbeuren)과 같은 개별 기관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많은 대형 기관이 완전히 비어 있었고 뉘른베르크 재판소를 포함한 다양한 전쟁 재판소의 추정치는 250,000에서 300,000에 이르렀으며 대부분 정신 병원 환자와 정신 장애자 요양원이었습니다.

유명한 독일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인 Frederic Wertham 박사는 나치 독일에서 자신의 직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내린 사형 선고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을 정한 입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차를 수행하고, 환자와 장소를 제공하고, 살인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경우에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형을 집행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환자를 다른 기관에서 살해하도록 인계한 사형집행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했고 종종 그것을 지켜보았다.

Peter R. Breggin 박사의 연구에서는 Mein Kampf에서 히틀러의 수사법과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정신의학 적 담론 사이에 충격적인 유사점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히틀러와 정신과 의사 사이의 유대감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나의 투쟁의 많은 부분이 그 시대의 주요 국제 저널과 정신과 교과서의 언어와 어조와 문자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Mein Kampf의 많은 구절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정신이 나약한 사람이 똑같이 정신이 나약한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이유에 대한 요구이며, 체계적으로 수행된다면 인류의 가장 인도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 ▶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이 자녀의 몸에 계속되도록 해서 안 됩니다...
- ▶ 육체적으로 퇴화하고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생식 능력과 기회를 막는 것은 엄청난 불행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후 히틀러는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와 사회 과학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의 많은 기사에서 히틀러의 우생학적 입법 및 정책을 연구하고 칭찬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례는 과학적 이익을 도덕성보다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4.2.<sup>^</sup>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과학이 생명의 지도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자연**의 우생학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파국적일 수 있습니다.



## 과학과 도덕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1.** <sup>2.^</sup> 장에서 살펴본 과학 해방 운동은 위험한 패러다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즉, 과학적 관심을 **최고 선**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과학적 자율성에 대한 열망에서 탄생한 이러한 변화는 과학적 지식을 도덕적, 철학적 고려를 포함한 다른 모든 형태의 이해보다 우선시하는 세계관인 **과학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과학이 최고의 권위로 승격되는 것은 도덕과 철학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근본적인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논리는 매혹적이지만 위험합니다. 과학적 진보가 궁극적인 선이라면, 그 진보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고려 사항은 극복하거나 폐기해야 할 장애물이 됩니다.

### (2018) 부도덕한 발전: 과학은 통제 불능입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작업에 대한 도덕적 반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정의상 도덕적으로 독립적이므로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단순히 과학적 문맹을 반영합니다.

원천: [New Scientist](#)



우생학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등장합니다. 과학이 모든 가치의 중재자로 간주될 때,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류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도덕적 불안감은 낡은 사고, 과학적 진보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일축됩니다.

과학과 도덕성을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이다.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지만, 과학적 사실이 철학적 근거 없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위험한 오류입니다. 이는 **자연**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관행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 챕터 4.1.

## 동일과정설: 우생학 뒤에 있는 교리

과학이 철학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할 때, 과학은 필연적으로 사실에 대한 확실성의 형태를 받아들입니다. 이 확실성은 단지 경험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학적입니다. 즉, 과학적 진리가 도덕성과 구별되도록 하는 확실성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우생학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바로 그 기초입니다.

**동일과정설**에 대한 독단적 믿음, 즉 과학적 사실은 마음과 ∞시간에 관계없이 타당하다는 믿음은 이러한 확실성을 뒷받침하는 독단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는 많은 과학자들이 암묵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믿음이며, 종종 자신의 윤리적 입장을 **관찰에 직면하여 겸손한 것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도덕적 선보다** 과학적 진실을 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작업에 대한 도덕적 반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정의상 도덕적으로 독립적이므로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단순히 과학적 문맹을 반영합니다.

(2018) 부도덕한 발전: 과학은 통제 불능입니까? ~ *New Scientist*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William James**는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진리는 선의 한 종류이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선과 구별되는 범주가 아니며 선과 동등한 범주도 아닙니다. **참이란 믿음의 방식으로** 선하고 명확하고 할당 가능한 이유로도 선하다고 입증되는 모든 것의 이름입니다.



제임스의 통찰력은 동일과정설의 핵심에 있는 독단적 오류, 즉 과학적 진리가 도덕적 선과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 오류는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생학적 사고의 바로 그 기초를 형성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일과정설의 핵심에 있는 독단적 오류는 과학을 생명의 **지도 원리** 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 챕터 4.2.

# 과학을 생명의 지도원리로 삼는가?

1.2.<sup>^</sup>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학에서 과학이 해방되면서 과학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 사실이 마음과 시간에 관계없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는 동일과정설의 독단적인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정은 과학적 진보의 실제 영역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 진화와 생명 자체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 적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과학의 유용성은 셀 수 없이 많은 성공을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William James이(가) 예민하게 관찰한 바와 같이 과학적 진리는 **선의** 한 종류에 불과하며 도덕과 구별되거나 우월한 범주가 아닙니다. 이러한 통찰은 과학을 삶의 지침 역할로 승격시키려는 시도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냅니다. 즉, **가치**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형적 조건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수단을 통해 인간의 진화를 지시하려는 시도인 우생학을 고려할 때 우리는 경험적 영역을 초월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9) 과학과 도덕: 과학의 사실로부터 도덕을 추론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1740년 철학자 데이비드 흄에 의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과학의 사실은 가치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되풀이되는 것처럼 과학이 전능하고 조만간 가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은 모든 세대에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원천: [Duke University: New Behaviorism](#)



과학적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종종 간과되기 쉬운 Hume의 통찰력은 과학이 본질적으로 삶의 가장 심오한 결정을 안내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우생학 영역에서 과학을 그러한 틀로 사용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이 결여된 일련의 경험적 데이터 포인트로 생명의 풍요로운 태피스트리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오늘날의 우생학

**우**생학의 유산은 우리의 관심과 조사를 요구하는 미묘하면서도 널리 퍼져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현대 사회에 계속해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2014년 풀리처상 수상 저널리스트 **Eric Lichtblau**는 자신의 저서 *The Nazis Next Door: How America Became a Safe Haven for Hitler's Men*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의 충격적인 장을 공개했습니다. Lichtblau의 세심한 조사에 따르면 10,000명이 넘는 고위 나치당원들이 전쟁 후 미국으로 피난처를 찾았지만 그들의 잔학 행위는 편리하게 간과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방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적 계시는 우생학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쉽게 지속되고 도덕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침투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2014) 이웃집 나치: 미국은 어떻게 히틀러의 부하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나

원천: [Amazon.com](https://www.amazon.com)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국적으로 신디케이트된 라디오 진행자인 **Wayne Allyn Root**가 지적한 것처럼, 이 어두운 과거의 메아리가 현대 미국에 울려 퍼집니다. 가슴 아픈 블로그 게시물에서 Root는 미국의 최근 사회 발전과 나치 독일의 초기 단계 사이에 불안한 유사점을 그렸습니다.

(2020) 미국은 나치 독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기사를 쓰는 것이 나를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나는 나치 독일과 홀로코스트의 시작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평행선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떠. 악명 높은 수정의 밤 동안 나치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구하십시오. 1938년 11월 9-10일의 밤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공격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경찰과 "선한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유대인의 집과 사업체는 약탈당하고 훼손되고 불탔습니다. 나치는 책을 불태우면서 웃고 환호했다.

원천: [Townhall.com](https://www.townhall.com)

루트의 관찰은 한때 우생학적 이데올로기가 번성할 수 있었던 조건이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다시 표면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름끼치게 상기시켜 줍니다.

현대 우생학의 교활한 성격은 현대 미국 사회에 숨겨진 우생학 관행을 폭로한 New York Times 칼럼니스트 **Natasha Lennard**에 의해 더욱 조명됩니다.



(2020)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 강제 불임

우생학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해 강제 불임의 명시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치와 비인간화면 충분하다. 이것은 트럼프식 특산품이지만 애플 파이만큼 미국적입니다.”

원천: [The Intercept](https://www.theintercept.com)

Lennard의 통찰력은 우생학 원칙이 어떻게 사회 구조 내에서 은밀하게 작동하여 명시적인 정책 없이 체계적 불평등과 비인간화를 영속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가장 놀랍게도 우생학적인 사고가 부활하고 있다는 점은 배아 선택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우생학의 현대적 반복은 부모의 선택과 과학적 진보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쉽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배아 선택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이러한 도덕적 도전의 세계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Nature.com에 보고된 대로:

**(2017)  중국의 배아 선택 수용은 우생학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서구에서 배아 선택은 여전히 엘리트 유전 계급의 생성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비평가들은 나치 독일과 인종 청소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 우생학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우생학에 그러한 수하물이 없습니다. 우생학에 대한 중국어 단어인 *yousheng* 은 우생학에 관한 거의 모든 대화에서 긍정적으로 명시적으로 사용됩니다. *Youheng*은 더 나은 품질의 아이들을 낳는 것입니다.

원천: [Nature.com](https://www.nature.com)

MIT Technology Review는 이 문제의 긴급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2017) 우생학 2.0: 우리는 우리 아이 선택의 여명기에 있다**

자녀의 완고함을 선택하는 첫 번째 부모 중 하나가 되겠습니까? 기계 학습이 DNA 데이터베이스의 예측을 해제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부모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처럼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천: [MIT Technology Review](https://www.technologyreview.com)

배아 선택의 이러한 발전은 부모의 선택과 기술 진보라는 언어로 위장된 우생학적 사고의 현대적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적 역량이 확장되더라도 우생학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 자연 보호

**이** 글은 우생학이 자연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의 부패**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의 인간 중심적 렌즈를 통해 진화를 지시함으로써 우생학은 탄력성과  $\infty$ 시간의 힘을 키우는 본질적인 과정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생학의 근본적인 지적 결함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것이 실질적인 방어와 관련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생학에 대한 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왜 자연과 동물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뒷자리로 물러나 우생학에 관해 침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4.<sup>^</sup> 장은 철학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과학의 수세기에 걸친 지속적인 시도를 보여줍니다.

▶ 4.1.<sup>^</sup> 장에서는 철학 없이도 과학적 사실이 타당하다는 개념의 근간이 되는 독단적 오류를 폭로했습니다.

▶ 4.2.<sup>^</sup> 장에서는 과학이 삶의 지침 원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누가 우생학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할 것인가?



[info@gmodebate.org](mailto:info@gmodebate.org)에서 여러분의 통찰력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December 16, 2024에 인쇄됨*



GMO 논쟁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

© 2024 Philosophical.Ventures Inc.